본래 선장 입 열어…"증축 등 구조 바뀌며 운항 어려움 있었다"

화물 과적 여부·증개축 과정 본격 조사

선원 일부 "퇴선방송 승객에 전달 안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1일 항해사와 기관장 등 선원 4명을 체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위와 임무 등에 비춰 이들 선원 4명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체포했다.

수사본부는 특히 이들 선원 중 일부에게서 '승객에게 퇴선 방송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구조된 선원들이 긴박한 상황에 브리지(선교)에 모인데다, 무전기를 들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선원들끼리만 상황을 공유하며 탈출했는 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장을 포함한 선원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SNS 메시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화물 과적 여부와 선박 증·개축 과정 등도 본격 조사하고 있다. 화물적재 상태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를 불러 과적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관계자를 상대로 세월호 여객선 증설검사와 관련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휴가 중이던 본래 세월호 선장인 신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선박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하자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세월호 증축 등 세월호 구조가 바뀌면서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조치 보니

- 오너 일가 40여명 출금조치
- 허위사실 방송 20대 영장
- 실종자 모욕 일베 회원 검거

수사본부 안상돈 검사는 "(항해에 있어) 이전까지와 달랐던 점이 있는지 확인차 불렀다"며 "진술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지검과 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오너 일가와 청해진해운 김모(72)사장 등 40여명을 출금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남지방경찰청은 MBN에 출연해 각종 허위사실을 전한 홍모씨(26)를 체포해 22일 오전 중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모욕·비하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모욕 등)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A(28)씨를 검거,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개정법 작년 10월 시행…최고 무기징역 가능

선장 뺑소니 처벌 어떻게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도주선박 혐의 등으로 구속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이 이번에 처음 적용한 특가법의 '도주선박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이 발의해 신설됐다.

당시 김 의원은 "선박 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도주 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해상 교통사고의 뺑소니 엄벌' 차원에서 입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뺑소니 선장 또는 선원에게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두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시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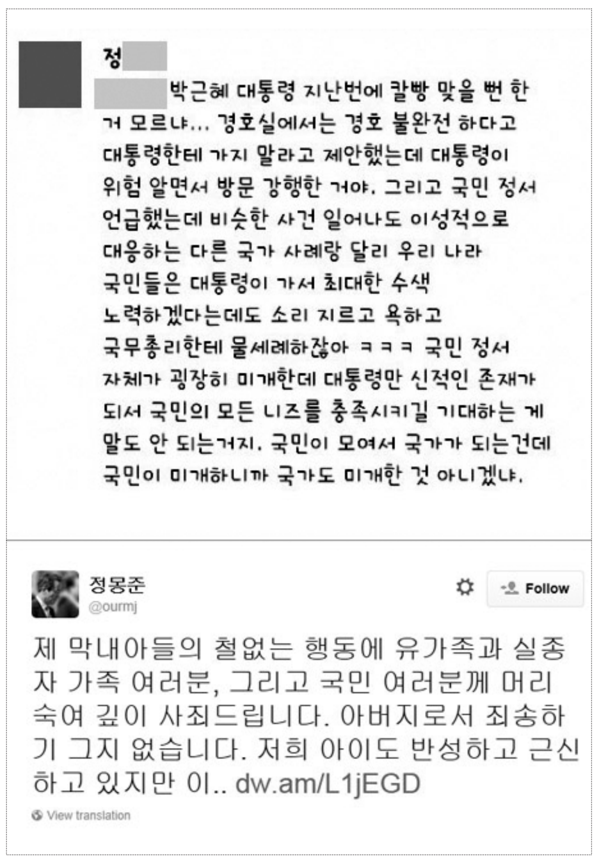
문제는 해상 뺑소니 처벌 조항이 이번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조항은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조 대상을 상대방 배 탑승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선장의 행위를 '도주'로 볼 수 있는지, 이번 사고 원인을 '운항 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등 법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어 단언하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칼빵 맞을 뻔 한 거 모르냐… 경호실에서는 경호 불완전 하다고 대통령한테 가지 말라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위험 알면서 방문 강행한 거야. 그리고 국민 정서 언급했는데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 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하잖아 ㅋㅋㅋ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되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정몽준
@ourmj
Follow
제 막내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지만 이.. dw.am/L1jEGD
View translation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막내아들 예선씨의 페이스북 글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 정 의원의 막내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정 의원의 사과문.(사진 오른쪽)

정몽준 아들 "국민 미개" 망언에 국민 분노

공분 사는 무개념 행동들

鄭후보 "머리숙여 깊이 사죄"

서남수 장관, 유족 자극하고

안행부 감사관 기념촬영 물의

세월호 침몰로 국민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국민이 미개하다"는 망언에 가까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는 등 일부 사회지도층의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잇따라 공분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 의원의 막내아들인 예선(19)씨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현장 방문을 비난하는 여론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느냐"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논란이 빠르게 확산하자 이날 '사죄문'을 통해 아들을 대신해 사과한 데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의 2남2녀 중 막내이며, 대입 재수생인 예선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을 하겠다는 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 한다"면서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요구)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이 진도 팽목항 대합실 건물 1층에 마련된 가족지원 상황실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려 했다. 이에 극도로 흥분한 가족들이 반발, 현장을 방문한 이주영 장관은 가족들에게 가로막혀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

안행부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송영철 감사관의 직위를 박탈하고 송 감사관이 21일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학생들의 희생이 가장 컸는데도, 정작 교육부 수장인 서남수 장관은 경솔한 행동을 일삼아 망신만 당하고 있다.

서남수 장관은 지난 18일 안산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단원고등학교 학생 이모 군의 빈소에 나타났다가 유족을 자극해 격한 항의를 받았다. 한 수행원이 서 장관보다 먼저 빈소 앞에 다가가 유족에게 "교육부장관님 오십니다"라고 귓속말을 건넸고, 유족은 "어쩌란 말이냐. 장관 왔다고 유족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서 장관은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했다가 의전용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라면을 놓고 먹는 모습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이 모습은 피해 학생과 가족이 체육관 바닥에 앉아있는 상황과 비교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회사원 서부광(41·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위로한다면서 상처에 소금만 뿌리고 간 꼴"이라면서 "이럴 거면 구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라리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며 맹비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선장 음성분석…거짓 진술 가능성

쌍나팔

○…승객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양심에 꺼리는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음성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

○…음성분석전문가인 충북도립대학 생체신호분석연구실의 조동욱(56·전자정보계열) 교수는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언론과 인터뷰한 이씨의 음성을 분석, 성대의 진동수(피치)와 에너지 크기(강도)가 평균과 차이를 보여 양심에 꺼리는 답변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조 교수는 "이선장은 '퇴선명령'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두번째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목청을 높였지만 '피치'나 '강도'는 상승하지 않았다"며 거짓 진술일 가능성을 제기.

/연합뉴스